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준 이는 벗이다

1면에서 계속

밀인사의 특이한 전각은 경책전(警策殿)이다. 원래는 선원정규를 지키지 못한 대중이 잡화하는 전각이었으나 문화혁명 이후에는 한때 위산항 관리들의 임시청사로 사용됐다고 한다. 지금은 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산선사의 위치를 상징하듯 밀인사 전각들 중에서 만불전 다음으로 크다.

〈위산경책〉은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의 첫 걸음, 즉 행자교육을 마치고 강원 1년차에서 배우는 책(치문)에 나온다. 불법을 공부하는 데 속속의 구분이 어디 있겠는가. 재가자도 마음이 맑고 향기로우면 청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이다. 따라서 첫 마음을 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위산경책〉은 더 없이 귀하다. 경책전에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떠올려 본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에게 ‘도를 닦고 몸을 단속하는 데에는 옷과 밥과 수면, 이 세 가지를 넉넉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며 법도를 지어주셨다.”

이른바 삼부족(三不足)으로 의부족(依不足), 식부족(食不足), 수부족(睡不足)한 청빈한 자리에서 수행하라는 당부다. 다음의 말씀도 늘 잊히지 않는다.

“먼 길을 갈 적에는 좋은 도반과 동행해 자주자주

눈과 귀를 맑게 하고, 머무를 때에도 반드시 도반을 가려 때때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서(俗書)에도 이르기를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 준 이는 벗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가는 것 같아서, 비록 당장에 옷이 젖지는 않아도 점점 축축하게 적셔진다. 한편 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쁜 지경을 길러서 아침저녁으로 악한 것을 하게 되는데, 가까이는 목전에서 과보를 받고 멀게는 죽은 뒤에 윤회에 들게 된다. 한편 사람의 몸을 잃으면 영원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어찌 마음에 새겨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먼 길을 갈 적에...”라는 구절은 순례 중인 우리 일행에게도 해당된다. 경책전에 들어 다시 한 번 새겨보게 뜻 깊은 시간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완성시켜 준 이는 벗이다”라는 구절이 오늘날과 가슴에 더 와 닿는다.

양산이 향엄의 여래선과 조사선을 구분하다

나를 완성시켜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를 일러 도우(道友)라고 할 것이다. 천 년 전 밀인사에 머물며 위산 문하에서 정진했던 양산과 향엄지한(香嚴智

閑: ?~898)의 우정이 그림다. 하루는 위산이 향엄을 불러 말했다.

“너는 백장 스님께서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대답했다고 들었다. 이는 네가 총명하고 영민해 이해가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로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다. 부모가 낳아주기 전 너의 본래면목에 대해 한 마디 말해 보아라.”

향엄은 말문이 막혀 방으로 돌아와 모든 경서를 뒤져가며 대답을 구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자탄했다. “그림 속의 떡은 배고픈 배를 채우지 못한다.”

이후 향엄은 기회를 내어 위산에게 달려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마다 위산은 말했다.

“만일 너에게 대답해 준다면 너는 뒷날 나를 욕할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일일 뿐 결코 너와는 관계가 없느니라.”

마침내 향엄은 평소 즐겨 보았던 경서들을 불태우면서 말했다.

“금생에는 더 이상 불법을 배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멀리 만행하면서 얻어먹는 밤중 노릇이나 하면서 몸뚱이를 판매 하리라.”

향엄은 위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떠났다. 그는 남양(南陽) 지방을 만행하다가 혜종국사 탑을 참배하고는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하루는 마당가 잡초를 뽑다가 우연히 기왓장 한 조각을 집어던졌는데, 기왓장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는 단박에 위산이 준 화두를 깨달았다. 향엄은 서둘러 처소로 돌아와 목욕하고 향을 사른 뒤 스승 위산이 있는 쪽을 향해 절했다.

“스승님의 큰 자비는 부모님 은혜보다 크십니다. 그때 저에게 그 일을 말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향엄을 완성한 이는 양산이 아닐까 신라 순지선사, 양산 가풍 신라에 전해

이 소식을 위산이 전해 듣고 양산에게 “향엄이 깨친 모양이구나” 하자, 양산이 향엄의 계승을 살펴보고 난 뒤 “이 계승은 지견으로 따져서 쓴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고 했다. 이후 양산이 향엄을 만나 말했다.

“스님께서 사제가 깨달은 것을 칭찬하셨소. 그 일을 한 번 말해보시오.”

향엄이 오도송을 읊조리자 양산이 말했다.

“이는 지난번 일을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오. 정말로 깨쳤다면 달리 말해 보시오.”

향엄이 또 계송을 지었다.

지난 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네
지난 해 가난은 바늘 꽃을 땅도 없더니
금년의 가난은 바늘마저 없구나.

양산이 말했다.
“여래선은 사제가 알았다고 인정하겠소만 조사선은 꿈에서도 보지 못했소.”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가난해졌다는 말은 해를 거듭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졌다는 뜻이므로 점점 닦아가는 돈수(頓修)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향엄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계송을 지어 읊조렸다.

나에게 한 기쁨이 있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보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육조단경〉을 사숙하던 청년 모택동이 머물렀던 밀인사 곁방.

더 이상 사미라 부르지 말라.

양산이 이 일을 위산에게 보고했다.

“반갑게도 지한 사제가 조사선을 이뤘습니다.”

한 기쁨을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보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 돈오(頓悟)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양산과 향엄이 탁마한 것을 두고 훗날 위산의 철(結)스님은 “눈과 서리가 없으면 송백(松柏)의 지조를 어찌 알겠는가!”라고 평했는데, 〈위산경책〉에 나오는 구절의 벗처럼 향엄을 완성하여 준 이는 양산이 아닐까 싶다.

〈육조단경〉은 최고의 불경이자 노동인민의 불경
수불 스님도 순례 중에 ‘깨닫고 난 뒤의 갈림길’

(858)에 입당해 곧바로 양산을 찾아 입실제자가 됐다고 한다. 순지가 밀인사에 온 것은 졸공 양산의 좌우를 떠나지 않고 참학한 까닭이었다. 경문왕대에 귀국해 오관산 용암사와 서운사에 머물렀으므로 순지를 오관산서운화상이라 부르기도 했다. 양산의 일원상(一圓相) 가풍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한 선사로서 세수 65세에 입적하니 시호를 묘(了悟), 탑호를 진원(眞源)이라 했다.

조당 뒤편 요사 팻말에 모택동유숙처(毛澤東留宿處)라고 적혀 있다. 침상이 하나 있는 조그만 골방이다. 1917년 청년 모택동은 영향현에 머무는 동안 평소 흠모했던 밀인사 주지스님과 3일 밤낮을 토론한 끝에 자신의 정치신념을 굳혔다고 한다. 훗날 주석이 된 그는 1956년에 영향 현위서기(縣委書記) 장학정(張鶴亭)을 만나 다음과 같은 글을 써 주면서 밀인사를 보호하도록 지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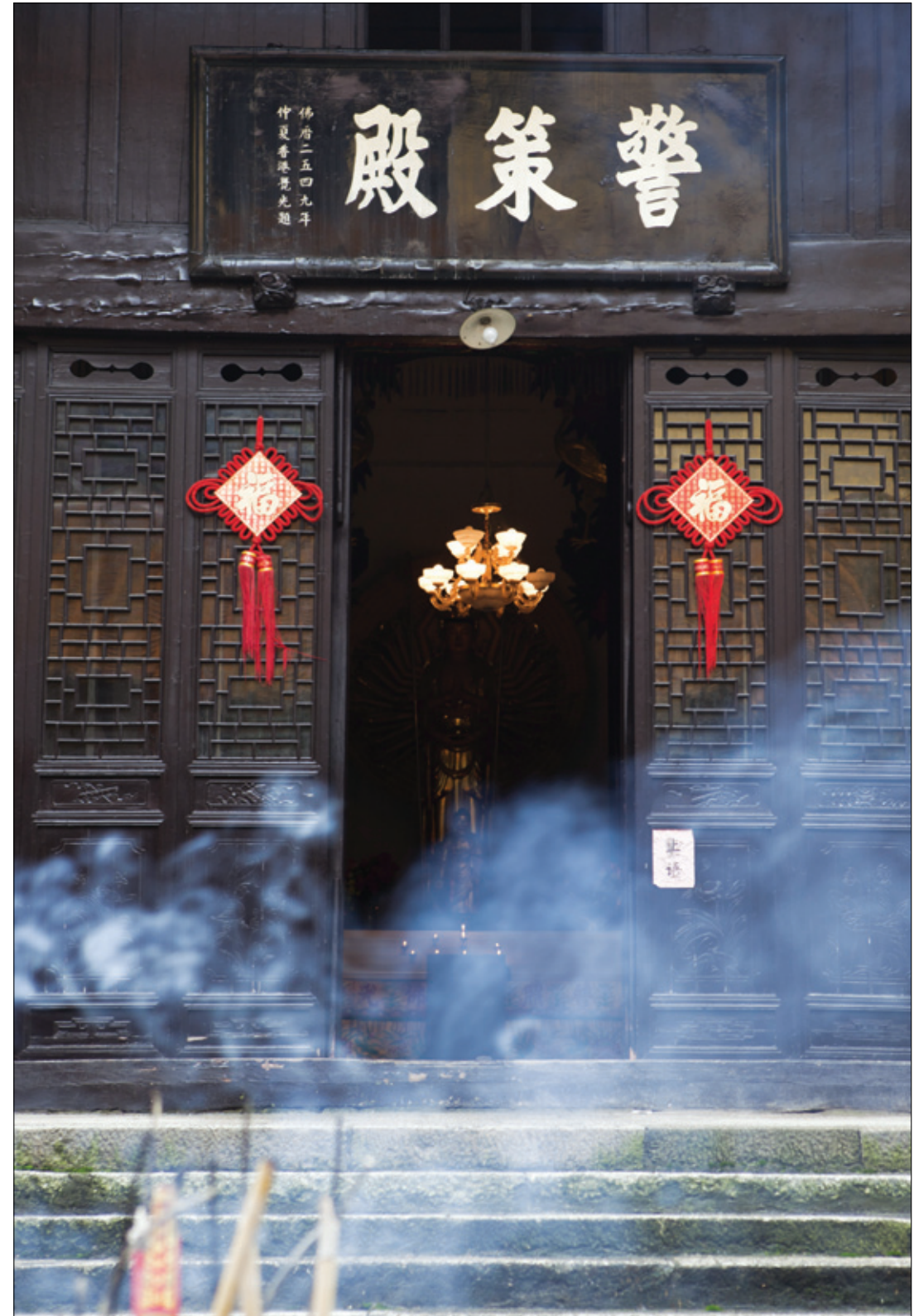
‘위산은 좋은 지방으로 밀인사가 있으니 마땅히 잘 보호해야 한다(僞山是個好地方 有個密印寺 應該好好保護起來).’

모택동이 정치적인 수사로만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는 15살 때 모친이 앓아눕자 남의 관음대를 찾아가 기도했고, 27세 때 여금희(黎錦熙)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학(佛學) 도서를 구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그는 〈금강경〉, 〈화엄경〉 〈육조단경〉을 접하게 된다. 특히 그는 〈육조단경〉을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한 바, 해능을 ‘선종의 진정한 창시자이자 중국불교의 조사’라고 평했으며 〈육조단경〉의 가치를 역압받던 중국인민의 ‘주관적 능동성을 돌출시킨 중국 철학사상의 거대한 약진이다’라고까지 극찬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불경은 바로 노동인민의 불경인 〈육조단경〉이며, 노동인민은 바로 해능이었다”고 말했다.

위산과 배후가 심었다는 은행나무 아래 조성된 조그만 광장 벽에 모택동의 친필 글씨가 보인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중국불교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승속 간에 신심의 우물이 메마르지 않은 한 중국불교의 미래는 밝다는 느낌이 든다.

순례자 일행은 왔던 길을 되돌아 위산이 말년에 은거한 동경사 터로 가 묘탑을 참배하기로 하고 밀인사를 나선다. 묘탑은 당 대종 10년(856)에, 그러니까 위산이 입적한 3년 뒤에 이경(李景)이 위산의 묘탑을 만들어 줄 것을 상주해, 함통 4년(863)에 황제가 문도를 조정으로 불러 시호를 대원(大圓), 탑호를 정혜(淨惠)라고 정하여 내렸다. 입적한 지 10년 만이니 위산에서 장안이 결코 녹록한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대중이 〈위산경책〉을 거울 삼아 참회장소로 이용하는 경책전.

단기출가 참선·단식

2010 겨울 12월 1월 2월 삼매체험 수련회 5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씻을 수 없는 몸에 뱀 관행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가능!

》금강단식 국민단식

-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면역성 노화방지 발암억제 혜택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생리연장 금연 금주
- 다이어트 1일최고 3Kg감량. 요요현상제로

나를 찾는 것은 인류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처방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분명한 최상승 참선이 인류를 수명에서 끌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고자하는 다짐만 있다면 환인선원에서 참선공부 힘을 얻는 것은 순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 5일수련,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일정 >>

차수	날 짜	기간	장 소	차수	날 짜	기간	장 소
1차	12.25(토) ~ 12.29(수)	5일	재주원명선원	4차	1. 21(금) ~ 1. 25(화)	5일	재주원명선원
	1. 23(일)	30일			2. 19(토)	30일	새은명선원에서
	2. 12(토)	50일			3. 12(토)	50일	"
	4. 3(일)	100일			4. 30(토)	100일	"
2차	12. 31(금) ~ 1. 4(수)	5일	재주원명선원	5차	1. 31(금) ~ 1. 4(금)	5일	재주원명선원
	1. 29(토)	30일			2. 27(일)	30일	
	2. 19(토)	50일			3. 19(토)	50일	
	4. 9(토)	100일			5. 7(토)	100일	
3차	1. 14(금) ~ 1. 18(화)	5일	재주원명선원	6차	2. 18(금) ~ 2. 22(화)	5일	재주원명선원
	2. 12(토)	30일			3. 19(토)	30일	
	3. 5(토)	50일			4. 9(토)	50일	
	4. 23(토)	100일			5. 28(토)	100일	

* 위 '원명선원' 지명 표기 2차 외에는 환인선원에서 행함.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